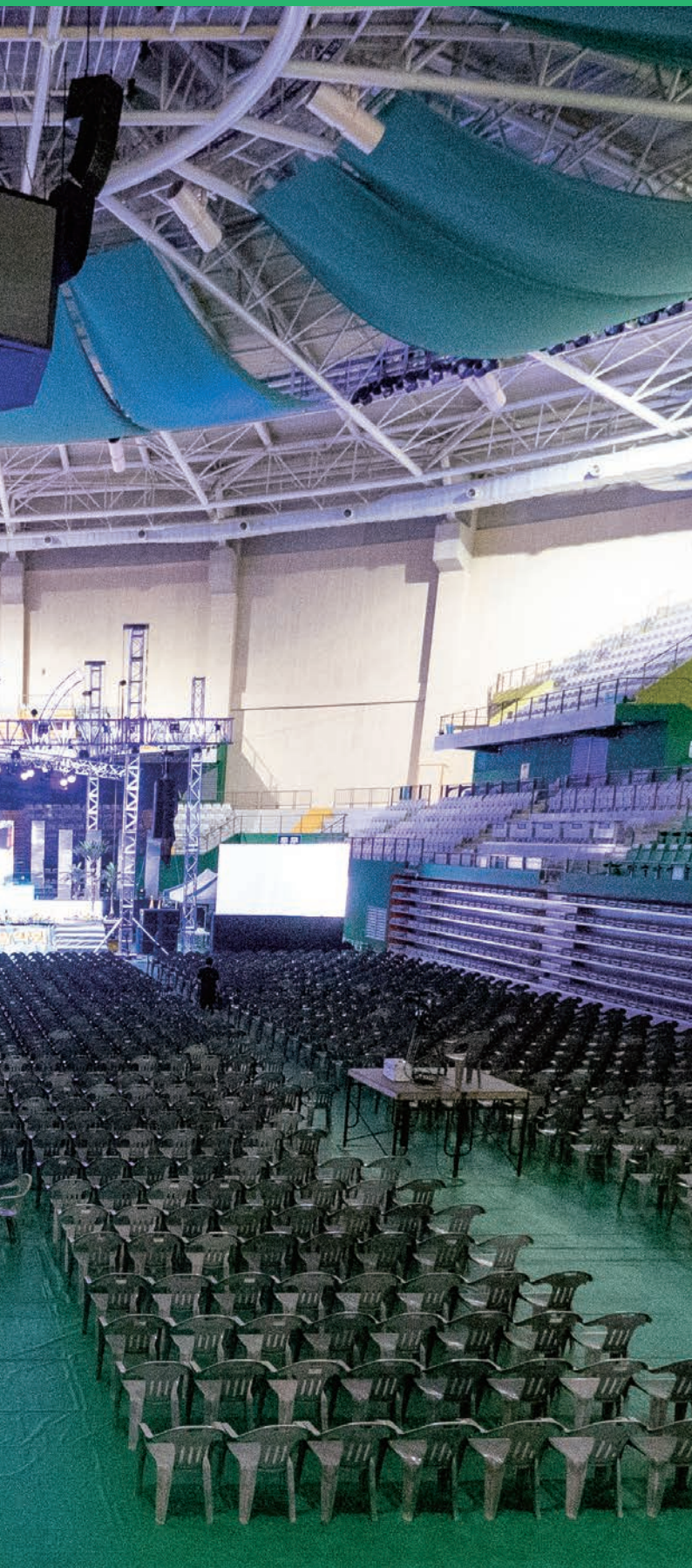




이번에 확장해야 하는 원주 종합체육관은 매우 넓었지만 K.M.E. GALO 시스템은 여유있게 전체 배치를 확장해냈다.



# K.M.E. 스피커 시스템이 활약하다

## 제23회 원주 시민의 날 경축행사

이무제 기자 도안파비스(주), 코리아이엔에스

명실상부한 강원도 최대의 도시 원주는 홍수나 태풍, 가뭄 등이 거의 없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지리적 조건 덕에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며 지방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명 강원도에 속하지만 산악지형과는 거리가 멀며 섬강이 만들어낸 넓은 평야를 끼고 있으며 동쪽은 치악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수지리'적으로는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할만하다. 이에 따라 원주는 관광으로 유명한 축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오크밸리, 간현유원지, 박정리문학공원 등 알찬 자연경관과 명승지를 갖고 있어서 꼭 한번 들를만한 곳이다. 이번으로 23회째를 맞는 원주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지역의 대표 음향·영상 업체인 코리아이엔에스가 사운드 전반을 맡아 행사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높였으며 스피커 시스템은 K.M.E.의 공식수입원인 도안파비스(주)가 신에 라인어레이 스피커인 GALO G10 시스템과 GB218 서브우퍼를 지원해 행사의 격을 더욱 높였다.

8월 30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기념식 후 경축 한마음 콘서트로 기획된 이 행사는 신에 그룹 '몽키타이거라벨'과 '오빠친구동생'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원주시의 홍보대사인 텔런트 전원주가 출연해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이후 남진, 김연자, 조영남, 박미경, 진미령, 뉴키드, 엘로비 등 정상급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 외에도 8월 31일 시청 푸른광장에서는 '2019 아듀썸머 콘서트'가, 9월 1일 행구수변공원에서는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35만 원주 시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 독일의 프리미엄 스피커 시스템 K.M.E.가 등장하다

사실 지방의 많은 렌탈 컴퍼니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의 부족으로 그들에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장비를 구비한 경우가 많다. 사실 어떤 제품으로도 능히 행사를 치러내는 그들이지만 믿을만한 프리미엄 스피커 시스템이 뒤를 받쳐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도안파비스(주)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23회 원주 시민의날 경축행사에 자사의 K.M.E. GALO G10 스피커 시스템과 GB218 서브우퍼를 다량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깜짝 등장한 GALO G10 시스템은 지난 10여년간 K.M.E.의 기함을 맡아왔던 PANO 시스템을 개선 및 대형화시킨 버전으로 10인치 LF 유닛 2개와 HF 드라이버 3개가 조합된 2웨이 구성의 라인어레이 시스템이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다중 way 구성은 아니지만 각 유닛의 어쿠스틱 중심을 동일하게 맞춰낸 설계 및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최소화시킨 구성으로 충실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을 목표했다고 한다.

외형은 전형적인 중소형 10인치급 라인어레이 스피커이지만 60Hz~20kHz의 대역을 무려 141dB SPL로 출력하는 고성능이 특히 주목할만하다. 소형 폼팩터를 유지하면서 고성능을 추구하는 것은 최근 스피커 개발의 트렌드인데 K.M.E.는 타사의 대형 사이즈 시스템에 필적하는 성능의 GALO G10의 출시로 단숨에 시장 흐름의 선두주자로 올라선 것이다.



스피커 시스템은 L/R  
배치로 GALO G10 시스  
템이 각각 6통씩, 총 12통이,  
GB218 서브우퍼는 3통씩,  
총 6통이 설치되었다.



GALO G10 시스템은  
지난 10여년간  
K.M.E.의 기함을  
말아왔던 PANO  
시스템을 개선 및  
대형화시킨 버전으로  
10인치 LF 유닛 2개와  
HF 드라이버 3개가  
조합된 2웨이 구성의  
라인어레이 시스템이다.

이번에 사용된 수량은 top 유닛 6통을 L/R 구성하여 총 12통으로 원주 종합체육관 전체를 채우기엔 언뜻 보기에는 수량이 부족할 것 같지만 실제로 출력은 남아돌았다고 한다.

저음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된 서브우퍼는 상당한 위압감을 자랑하는 외형의 GALO GB218이다. L/R 배치로 각각 4통씩, 총 8통이 설치되었는데 그라운드 스택 방식과 더불어 효율적인 L/R 배치인만큼 풍성한 저음 이미지를 확보했다. GB218은 명칭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18인치 유닛이 2개 내장된 서브우퍼로 25Hz까지의 저음을 최대 138dB SPL로 출력해낸다. 이번에 K.M.E. 스피커 시스템을 처음 접한 코리아이엔에스의 한동주 대표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는 원주를 대표하는 휴양파크인 오크밸리에서 오랫동안 음향 기술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그는 “듣자마자 매우 설계가 잘 된 스피커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고음 유닛의 펀치감은 흡사 훨씬 큰 보이스코일을 가진 컴프레서 드라이버의 반응과 같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도 부드럽고 섬세하게 높은 대역까지 고음을 재생해 내더군요. 2way 방식이지만 전혀 한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GALO G10 시스템에 2way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알겠더군요”라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서브우퍼인 GB218에 대해서는 “소문대로 매우 뛰어난 서브우퍼입니다. 행사가 열린 원주 종합체육관의 끝까지 저음 에너지를 여유있게 전달하면서도 저음의 대역이 매우 넓고 해상력도 뛰어납니다. 다만, 저는 GB218에 대한 호평을 먼저 들었는데 사실 G10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아서 K.M.E. 스피커 시스템은 여유만 된다면 정말 구매순위 1위에 올려두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라고 말했다.

## 효율적인 믹싱 및 전송 시스템

코리아이엔에스의 한동주 대표가 선택한 메인 믹싱 콘솔은 Midas의 세계적인 히트작, M32이다. 공전의 히트작, Behringer X32를 바탕으로 모든 하드웨어와 컨버터, 아날로그 입출력 등 실제로 소리와 내구성에 관여되는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 뛰어난 사운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들려주는 M32는 이제 수많은 렌탈 컴퍼니들이 메인 장비로 채택하면서 업계 표준으로 등극하고 있다.

한동주 대표는 Midas DL32를 스테이지 박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AES50으로 손실없이 전달된 신호는 바로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 앰프로 전해진다. 파워앰프 및 DSP로 쓰인 K.M.E. DA230은 AES3는 물론 Dante 입출력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다.



원주시 홍보대사 탈린트 전원주씨가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창하고 있다.



메인 콘솔로는 Midas M32가, 서브콘솔로는 Allen&Heath QU16이 사용되었다.



AES3는 물론 Dante 입력까지 갖춘 K.M.E. DA230파워앰프/DSP가 눈에 띈다.

고성능 DSP를 내장한 DA230은 채널당 8Ω에서 700W, 4Ω에서 1,500W를 발휘하는 2채널 앰프인데도 무게는 단지 9kg에 불과해 이동이 잦은 렌탈 컴퍼니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는 효과 앰프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리모트 콘트롤 기능을 제공하며 옵션을 통해 Dante 입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첨단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을 구현하기에 최적이다.

보조 콘솔로 쓰인 Allen&Heath QU16은 오케스트라 무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당일 합창단만 서는 것으로 결정되어 보조 콘솔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효율이 극대화되어 음의 손실이 최소화된 구성으로 무대의 사운드가 가감없이 메인 스피커 시스템으로 전달하도록 심플하게 꾸민 점이 돋보인다.

## 하나된 시민의 조직적인 힘

행사 시작 시간은 7시였지만 원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이미 오후 4시 경부터 자리가 들어차기 시작했다. 원주시의 배려로 완전 무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이른바 ‘문화 복지’의 역할도 겸했다.

시민 행사이기에 강력한 통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성숙한 원주 시민들은 행사 시작 전까지 일체의 소란 없이 자리를 잡았다. 식전 공연을 맡은 ‘몽키 타이거라벨’과 ‘오빠친구동생’은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뛰어난 무대매너와 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행사 시작인 7시가 다가오면서 점점 고조된 분위기는 국민의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면서 금세 절정에 도달했다.

짧게 마무리 된 본 행사는 이후 남진, 김연자, 조영남, 박미경, 진미령, 뉴키드, 옐로비 등 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살기 좋은 도시’ 원주를 만드는데 일조한 많은 시민들은 이 날 함께 웃고 즐기며 노래 부르며 일상으로 돌아갈 에너지를 한껏 얻은 것 같았다.

또한 행사 전반을 책임진 K.M.E.의 GALO 스피커 시스템과 코리아이앤에스 측의 노련하면서도 섬세한 진행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완벽한 음향을 선보이며 원주 시민의 날 행사는 아름답게 저물어 갔다. **CTMX**



이날 사운드를 맡은 코리아이앤에스의 한동주 대표.

